



장수군, 민원실 현장 중심 응대 친절교육 실시

장수군은 지난 6일 민원관에서 민원 안내에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친절 교육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갖춰야 할 기본 자세와 친절한 언어 사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민원 사례를 공유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응대 요령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군에서는 친절 교육을 계기로 민원 처리 절차와 안내 방식 전반을 점검하며, 군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제공과 신속한 민원 처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공유했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형성된 친절 응대 문화가 전 부서로 확산돼 군민과의 소통 방식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 현장에서의 작은 변화가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군민 만족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고창소방서, 마을회관 방문해 주택화재 예방교육

고창소방서는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주택화재 예방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마을 특성을 고려해 소방대원이 직접 마을회관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어르신들의 생활환경에 맞춘 맞춤형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 내용은 ▲농촌 주택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 원인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대피 요령 ▲119 신고 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 안전수칙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설명과 쉬운 용어 사용으로 어르신들의 이해를 도왔다.

고창소방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 스스로 화재 위험요소를 인식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경승 고창소방서장은 "농촌지역 어르신 가정은 화재 발생 시 대피가 늦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농촌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화재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소방서는 농촌지역 화재 예방을 위해 어르신 등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 안전교육과 홍보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안전한 성장 '맞손'

한국전기안전공사·LG에너지솔루션, 업무협약... 배터리 산업 안전 기반 강화 협력

한국전기안전공사와 LG에너지솔루션이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7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기술연구원에서 LG에너지솔루션(대표 김동명)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배터리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를 이어가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ESS 시장의 안전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대전환' 등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안전 생태계 조성이 핵심 목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에너지저장장치 설비 안전관리 정책 지원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교류 ▲ESS 안전 지원과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 ESS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적용되는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기준과 점검·검사 기준을 포함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공동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 화재 등 안전 우려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관리 기



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축인 ESS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구체적인 기술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ESS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박주상 영주수산 대표,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부안군은 최근 진서면에서 수산업체 영주수산을 운영하고 있는 박주상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박주상 대표는 지역 수산업 현장에서 꾸준히 사업을 이어오며 평소에도 장학금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기부 역시 고향에 대한 애정과 지역 발전에 대한 바람을 담아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박주상 대표는 "지역에서 사업을 이어오며 많은 도움을 받아 왔다"며 "고향사랑기부가 지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금동, 찾아가는 현장중심 복지행정 실천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는 올해도 동장과 함께하는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통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 복지행정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동 직원과 동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인부와 생활 속 불편사항과 어려움을 살피는 맞춤형 복지 활동이다.

특히 방문 과정에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보조금과 복지혜택을 한 장의 안내자료로 정리해 제공함으로써 복지제도를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담양군, 사회단체 주도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진행

순창군은 최근 담양군과 지역 상생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 간 상호 기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민간 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양 지역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양 군이 서로의 지역을 교차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순창군에서는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 체육회,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운동지회, 자율방범연합대, 대한적십자봉사회 등 7개 사회단체가 담양군청을 방문해 총 5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에 화답해 담양군에서도 새마을회와 주민자치연합회, 체육회, 의용소방대연합회, 자율방범연합회 등 5개 사회단체가 순창군청을 찾아 500만 원을 기탁하며 상호 기부를 이어갔다.

이번 상호 기부는 행정 주도가 아닌 민간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상호 기부는 민간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자체 간 상생 교류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담양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행정과 민간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상생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원소방서, 축사 화재 안전수칙 홍보 강화

남원소방서(서장 남철희)는 최근 관내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겨울철 축사 화재 재발 방지 위한 예방 활동과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사 화재는 주로 전기배선 노후, 콘센트 과부하, 난방·전열기기 주변 관리 소홀 등 전기적 요인과 함께 쓰레기 소각, 가연물 방치 등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축사 내 기본적인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사항은 △전기배선 및 전기설비 정기 점검 △전열기기 과부하 사용 금지 △보온재·스티로폼 등 가연성 물질과 전열기기 이격 설치 △축사 내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숙지 등의 안전수칙 준수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